

# 경로당·시설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 지급 총력

## 보성군, 혜택은 '빠짐없이', 신청은 '문 앞까지' 찾아가는 행정으로 편의성 대폭 확대

보성군은 7월 21일부터 시작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하기 위해 읍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보성사랑상품권(지류·카드형) 중 선택 가능하다.

보성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36,531명을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보성군은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일부 교통이나 정보 접근이 제한된 지역을 고려해 읍면별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고령자 이용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

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방문을 통해 쿠폰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

방문 신청 지원은 평일 낮에 경로당에서 진행되며, 전남 공무원이 현장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정확한 지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즉석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행정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혼잡 방지를 위한 마일별 신청 일정을 수립하고, 군민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 후 즉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마을의 신청 일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 90%, 도비 5%, 군비 5% 등 총 8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읍면별 신청 창구 운영, 팝센터 운영, 마을 방송과 홍보물 배포, SNS 연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상품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 환전 한도를 12월 31일까지 일시적 해지(무제한)하고 있다.

이번 1차 지급에서는 전 군민에게 20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9월 이후 2차에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해 최대 5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회복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와 고령층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는 섬세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무더위와 이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책임지는 민생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 광양시, 서민생활 지원 위한 민간 협력 캠페인 본격 추진

회원 100여 명과 미래산업국 소속 6개 부서 공무원 40여 명 등 총 1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차 캠페인은 7월 23일(수) 중마동 컨부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미래산업국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2회차 캠페인은 '2025 여름철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과 병행 추진돼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기간 ▲사칭 스미싱 피해 예방 ▲광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거래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SNS와 시 누리집, 매장 스티커 등을 활용해 가맹점을 안내하는 온라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오프라인 캠페인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협력 모델"이라며, "작은 소비가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중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민들께서 쿠폰을 조속히 수령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최대 535mm 극한호우' 장성군, 인명피해 없었다

### 재난대책본부 운영... 김한중 군수 "재해복구에 행정력 집중"

장성군이 17일~19일 최대 535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지만, 인명피해 없이 대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흘간 장성지역 평균 강우량은 392.2mm다. 남면이 535.5mm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으로 분석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19일까지 공공시설 24건, 사유시설 2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농지 피해는 총 509농가 135.6헥타르(ha) 규모가 접수됐으며, 축산 분야는 10농가가 부분 침수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송아지 두 마리가 폐사했다.

장성군은 기상청 호우특보 발령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3개 분야 협업

부서 및 읍면 공직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기상 상황과 호우특보, 대처요령 등은 재난문자, 마을방송을 통해 전 군민에게 발빠르게 전파했다. 지역 내 14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도 활용했다.

침수·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에 해당되는 5개 읍면 31세대 주민 38명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가 특별 해제 후 귀가했다. 수해를 입은 국도1호선 도로는 소방·경찰과 협력해 17일 밤 9시에 복구를 완료했다.

장성호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의 긴밀한 상황공유 및 대



응으로 황룡강 역시 큰 시설피해를 입지 않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900여 공직자와 협업기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극한호우 상황을 인명피해 없이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신속한 재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기상이변에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화순군이 만들어 갑니다! 화순형 24시 '천원보육' 어린이집 연장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1일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를 재지정하여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어린이집은 화순현대힐스테이트어린이집(원장 김영선)과 화순한양리어린이집(원장 김미소)으로 해당 어린이집 2개소는 안정적인 운영 실적과 지속적인 수요가 확인되어 7월21일 군수로부터 재지정 운영지정서를 교부받았다.

화순군은 지난 2023년 전남 최초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며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선도해 왔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부모의 경제활동·출장·질병 등의 긴급한 돌봄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돌봄 지원 모델로 지난 2년간 2개 어린이집에서 1,299명이 이용(2025년 6월 말 기준)하였으며, 이용자 100%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돌봄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타지

자체의 관심을 끌었고, 전라남도도 비롯하여 타 시군에서도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모티브로 야간 보육모델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이 지역 중심 보육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상당 기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화순군민뿐만 아니라, 화순군 관내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천 원에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운영일을 일부 공휴일까지 확대하고, 개소당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0세 영유아 가정에서 일반적인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아전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재능이어린이집을 시간당 2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거주지역이나 사유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 가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 담양군, 전남개발공사와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 시행협약

### 청년·신혼부부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통해 정주 인구 유입 도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22일 담양군청에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와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철원 군수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담양군 도시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담양군 내 방치된 빈집 2곳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충모 사장은 "담양군과 상생 협력모델 발굴로 주거복지를 다각화하고,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정주인구 유입과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빈집 정비를 넘어, 정주 인구 유입과 청년층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유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